변화하는 현실속 … 새로운 길찾기

신경림씨 여섯번째 시집 '쓰러진자의 꿈'

신경림 시인

90년대 우리 시의 뚜렷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현저한 내면지향성이다. 물론 자기세계에 대한 섬세한 미학적인 탐구가 현대시의 한 주류를 형성해 왔음을 생각할 때, 이는 새로운 경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90년대의 내면 지향성은 지난, 2.30년 간 소위민중문학에 투신해 왔던 일군의 시인들의 변화를 중요한 현상으로써 포괄한다.

〈농무〉와 〈새재〉, 〈가난한 사랑노래〉에서 피폐한 농촌의 현실과 소외된자들의 뿌리뽑힌 삶을 생생하고 따뜻하게 노래한 신경림 역시 이러한 흐름을 크게 비껴 가지 않는다.

지난 10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쓰러진 자의 꿈〉은 신경림의 여섯번째 시집이다. 첫 시집 (농무)(1973)를 상재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발간된 이 시집은 신경림의 시세계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특히 사상적인 면에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지을것인가의 문제가 고뇌하는 자아의 정직한 토로를 통해 다양하게 탐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림을 우선 지나온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그 시간은 '어떤 것은 내 몸에 얼룩을 남기고/어떤 것은 손발에 흙집을 남긴'(파도)). 고난의 삶이었으나, 이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뽑힐 것은 뽑혀야 하'((빛))는 냉혹한 반성과 정비의 대상이 된다. 이 반성과 정비의 대상에 이 세계와 역사, 시인 자신이 함께 포함됨은 말할것도 없다. 그 풍경은 어떠한가. 신경림의 초기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한 〈폐촌〉, 〈폐광〉의 모티브가 〈폐역(廢驛)〉으로 변주되면서 닫혀진 길의 쓸쓸함과 두려움을 형상화 한다. '늙은 개가 비실대며 빗속을 간다/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의 '버림'은 다시 얻기 위한 예비행위였음이 곧 드러난다. '불어닥칠 눈보라와 비바람 이겨내자면/겉에 걸친 것 붙은 것 몽땅 떨쳐 버려야 지/간편한 땐몸으로만 적어지도 지치지도 않고/먼 길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먼 길)). 가장 속깊은 것만을 남겨둔 채 모두 버린 길에서 이제까지 목소리 높게 들끓던 역사와 민중, 시인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길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멀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옳더 안으로 고이는 얽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표층 구조에서의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심층 구조의 세부사항까지를 훑어 내고 재조정하는 본질적인 항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집에는 '민중'보다는 '사람' 일반이 문제시되고 있다. 〈落日〉 〈파도〉 〈싹〉 〈초승달〉 〈雨中吟〉 〈밤차를 타고 가면서〉 등에서 보듯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슬프고 깊은 속'(〈초승달〉)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림의 이같은 변화를 자아의 심연으로의 도피나 안주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임진강) (파주의 대장장이를 만나고 오며) (은산을 다녀와서)등에서는 분단문제에 대한 빼어난 인식이 돋보이며, 〈소백산의 양떼〉 〈내가 사는 나라는)등에서는 민족 주체성에 대한 반성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大雪前〉 〈봄날〉에서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여전히 살아 있다. 시집 뒤에 수록한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림 시의 주제는 궁극적으로 자기 탐구이지만, '쓰러지는 자들, 짓밟히는 것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흩어지는 것들, 깨어지는 것들을 다독거리는 일'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난다.

> 쓰러질 것은 쓰러져야 한다
>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뽑힐것은 뽑혀야 한다
> 그리하여 빈 들판을 어둠만이 덮을 때
> 몇 날이고 몇 밤이고 죽음만이 머무를 때
> 비로소 보게 되리라

신경림의 시집은 이 편차들을 통합해 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그가 이 편차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에게 혁명은 아직 유효하다. '아무래도 혁명은 있어야겠다./더러 곳곳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잘못 꺽이고(…) 때로 연약한 벌레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며/애타게 울부짖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도,/그것들을 지켜보는 허망한 눈길이 있더라도'((홍수)).

신경림의 지금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때때로 그 둘은 행복하게 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점에서 시 (無人島)는 절창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 '너는 때로 사람들 땀냄새가 그리운가 보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가슴속에 묻어 하나를 묻고 살아가는/너 내의 서럽고 아름다운 무인도여'라고 끝맺음된다. 시인의 가슴 속에 묻힌 '큰 몸'이야말로 그가 이 시집에서 보여 준 무수한 버림(혹은 버림)을 통해 새롭게 획득한 삶의 지향성일 것이다.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든, 민중이라고 부르든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리 짜는 늙은이와 술 한 잔을 나누며 얻은 깨달음.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자리 짜는~))자리에 이른 지금, 삶은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행해지는 것이며, 시인은 삶의 순리를 읽어내려는 노력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신경림이 다시 얻은 삶의 인식은, 같지만 다른 어떤 것이다. 선뜻 하나로 합쳐지기에는 '조금씩 다른 슬픔과 기쁠이 있'((날이 밝아~))는 무수한 편차들이 이 세계에는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 신경림의 시는 이 편차들을 어떻게 통합해 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그가 이 편차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에게 혁명은 아직 유효하다. '아무래도 혁명은 있어야겠다./더러 곳곳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잘못 꺽이고(…) 때로 연약한 벌레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며/애타게 울부짖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도,/그것들을 지켜보는 허망한 눈길이 있더라도'((홍수)).

김 수 이
〈대학원박사3기 · 국문학〉

강단시론

안 영 수
〈문리대 교수·영문학〉

내 목소리 남의 목소리

언어교육연구원으로 가려면 온실을 지나 임간교실 옆 마흔아홉개의 뜰계단을 올라가 콘웰는데 가정대학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대학시절의 가장 소중했던 추억거리가 사라져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실망스럽다. 스물세살에 신입생이 되어 등룡문에 들어선 나는 시골에서 오신 어머니를 모시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곳이 바로 개나리가 한창 피었던 돌계단에서였다. 지금은 고희를 넘기신 백발의 할머니로 변하셨지만 당시는 미녀모쯤을 지시고 나일론 처마계고리를 입으신 40대의 고운 여인이셨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 낙엽이 발목을 덮던 임간교실에서 처음으로 좋아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다. 그런 돌계단과 임간교실이 추억의 한자락으로 자리를 비키고 지금은 물끝이 흥하게 일그러진 괴물같은 모습으로 임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인가, 이 가을이 유난히 쓸쓸하고 덧없이 생각되는 건.

'신(新)'자 단어 유행

며칠전에 입적하신 성철스님의 다비식에서 110과의 사리가 나왔다는 뉴스와 함께 그 분이 남긴 유품에 대하여 들었을 때 경이감을 느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누더기 장삼, 50년대의 양면괘지, 60년대 처음 나왔던 물펜,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도 다 닳을때까지 쓰셨다는 믿어지지 않는 일화들을 접하면서 사뭇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다. 늘 새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만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요즘은 온통 '신'자 들어간 단어가 유행하니 말이다. '신한국', '신경제', '신사고', '신세대'등의 어휘들이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국민이 없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개혁을 외치는 '신정부'도 과거 군부와의 단절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것이 헌것이 되고, 젊은이가 노인이 되고, 현재가 과거로 자리바꿈을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옛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럽을 여행하다가 아픈 다리를 쉬기 위해서 들어간 카페에는 18——년, 191—년에 문을 연곳이라는 팻말을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천정과 벽에 온통 고풍스러운 물건들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보았다. 옛것을 부수고 새것을 만들기보다 수리하여 보존하는 그들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역사의식을 느끼기도 했었다. 하물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역사의식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않더라도 그 만남의 기간과 깊이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감정의 변화를 좌우한다. 불교성화를 모아 풀이해놓은 법정스님의 '인연 이야기'에 이런 귀절이 있다. "만나지 말자 헤어지기 괴로우니, 태어나지 말자 죽기 괴로우니.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인가."

불신·아집의 병 심각

그런 의미에서 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교직원과 학생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적어도 노래가사처럼 바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선택에 의해서건 운명에 의해서건 우리는 인연에서 만나, 울창한 수목들과 철따라 피는 꽃들, 그리고 다람쥐, 까치등과 같이 호흡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소중한 운명적 '만남'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일까. 우리들 메마르게 하는 것은 불신과 아집이라는 병인 것 같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모두 학교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소식이라도 들게 되면 "정말이야? 믿어도 되는 거야"라고 재차 확인작업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또한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자기 목소리 내기에 혈안이 된듯한 사람들도 있다. 외견이 다른 상대방의 목소리를 농가하기 위해 온갖 장치를 한다. 대자보를 붙이고, 유인물들을 돌리고 심지어 집으로 발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이 제 소리를 내되 다른 악기들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대학의 각 구성원이 제 소리를 내되 다른 소리를 제압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총장선출이라는 현안 문제를 놓고 둘아가는 상황을 볼때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만의 특수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다른대학에서 이미 겪은 시련들을 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새 것을 추구하되 과거의 역사나 사실을 뒤엎거나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무가 잎을 털듯이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인생을 재려한다. 그리고 자기의 잣대가 표준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런 착각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의 아집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상징체계를 만들면서 지옥은 아집(selfhood)에 의해 분화 내지 고립된 상태라고 역설하였다. 11월의 나무들이 나뭇잎을 훌훌 털어버렸듯이 우리도 집착을 훌훌 털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지어도 공간이 모자란다고 아름다운 추억의 창소를 훼손하지 말라는,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에 감사하자는, 남의 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낮추자는 이 외침 또한 남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는 건 아닐까.

현장취재 양심수 석방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운동 나선 어머니들"

◇'민가협'어머니들이 지난 18일 탑골공원에서 양심수석방 촉구를 위한 목요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들의 한 맺힌 외침의 장소가 된다.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12월 23일까지 열리게 되어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란 굴레에 묶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형제를 감옥에 보낸 가족들로 이루어진 민가협이 김영삼 정권 출범후 뜸했던 재야 인권운동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새정부 출범당시 다른 민주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가협도 양심수 석방문제에 있어서 소위 문민정부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된 양심수문제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양심수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법질서의 적용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말에서, 전체 시국사범·양심수의 소수만을 석방시키고도 인권문제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흥보하는 행동에서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멀리 있음이 느껴졌다.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김선명(세계 최장기수)씨의 43년이란 복역기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수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국가보안법 철폐)없이는 풀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민가협은 '구속자 학부모회'란 이름으로 각 교도소의부당한 처우개선과 양심수들의 석방운동을 벌였던 어머니들이 85년 12월, 이 나라 민주화에 이바지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족시킨 순수 시민운동단체이다.

자식에게 국한된 어머니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의 어머니로서 민가협 어머니들은 양심수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제 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든 세상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들이 어딘가 모르게 부사같은 모습이었다.

감옥밖에서 벌이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투쟁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벌였던 투쟁 못지않게 힘이 있어 보였다. 투사는 만들어진다는 말이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맞는 표현 같았다.

〈신철식 記者〉

대우가족

는가, 넘어야 할 산은 밖에 있는데…

땅의 청년들이여,
을 들어 세계를 보라./

를 양분시켰던 이데올로기가 퇴조한 오늘,
은 배타적 경제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게 재편중인 新국제질서에서 살아남고자
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 기적"을 이루고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경쟁력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NAFTA, 우루과이라운드, SUPER 301조 등
장벽에 가로막혀 남아있던 해외터전마저
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아옵니까, 넘어야 할 산은 밖에 있는데…
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살아나려면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사활을
「세계경영」에 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해외진출방식으로는
세계시장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물건을 내다파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국제화전략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해외현지에 우리공장을 세우고, 세계1등상품을
우리기술로 만들어 현지에서 직접 팔아야 합니다.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기업경영의 모든 요소를
세계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네트워크화하는
총체적 해외현지경영—
이것이 바로 「세계경영」입니다.
「세계경영」이야말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오늘날 우리 기업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입니다.

대우와 함께
「세계경영」 대장정으로—

경영의 토착화에서 생산·판매·R&D의 현지화,
자원기지화, 금융의 복합화, 그리고 기술정보의
세계 네트워크화에 이르기까지—
대우는 「세계경영」에 우리경제의 사활을 걸고
한민족의 미래를 세계무대에서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중 가장 넓은
86개 해외지사와 각 분야별 65개 현지법인을
'95년에 250개, 2001년에는 300개로 확충,
지구촌에 우리의 산업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한계를 기필코 극복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한민족경제의 생존을 위하여,
밖으로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대우의 「세계경영」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경영

대우가 있습니다.